

2019년 8월 뉴스레터

리바이브이스라엘 동역자 여러분께

리바이브 이스라엘은 유대 산지의 독특한 메시아닉 공동체 야드하쉬모나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스텔이라는 포도주 공장과 이스라엘 최대의 방송국 채널 2 텔레비전 사이에 있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이스라엘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열방에는 16개 언어로 전달하는 방송이 최상급 포도주가 상징하는 기름 부으심과 현대 방송의 기술적 전문성을 결합하여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리바이브이스라엘은 또한 베이커리와 건물을 나눠쓰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근간이 되는 예언적 구절 중 하나가 점차 성취됨에 저희가 기여하는 것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인 '생명의 빵'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가는 이사야 2장 2~3절 말씀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와 그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히브리어 '토라'-문자적으로 '지시'라는 뜻]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팀원 소개 - 아비람



아비람은 23세에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실재하심을 이해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그분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은 뒤 즉각적으로 그는 주님께 친히 모습을 드러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는 혼자 일하던 중에 주님의 임재, 그 순결하고 거룩한 사랑을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초정통파가 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 접근은 너무 비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었지만, 유대인 예슈아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유대인을 핍박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예슈아를 저렇게 사모하잖아.” 30세에 신약을 읽은 끝에 그는 자신의 마음을 메시아께 내어드렸습니다.

아비람은 결혼하여 세 명의 멋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사진 촬영을 좋아해서, 눈길을 끄는 모든 것을 사진에 담습니다. 그 취미 때문에 그는

미디어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인으로 일하면서 노방 전도를 몇 년 하다가, 그는 온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결국 TV 전도가 해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편 다른 이들에게도 이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고, 그래서 예슈아하이 TV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아비람은 현재 이 사역을 인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민족을 주님의 왕국에 들이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일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 열정이 현실이 되게 해주셨어요.”

예슈아하이 TV의 기도 소식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아래를 읽어보시면 사역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

세상에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예슈아의 마지막 때 계획을 알고 싶어하는 커다란 갈망이 있습니다! 저희는 강의, 인터뷰 등 여러 가지 왕국적 콘텐츠가 담겨 있는 저희 미디어 서비스가 극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6월에만도 85만 명의 SNS 사용자들이 저희에 대해 알게 됐는데, 이는 그 전달에 비해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동시에 50만 명이 리바이브이스라엘의 영상을 보았는데, 이것도 전달보다 2배의 수치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라이브스트리밍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샤부올 행사의 경우엔 만 명 이상이 시청했습니다.

저희는 리바이브이스라엘 미디어와 저희 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전해드리는 리바이브이스라엘의 다른 사역 영역을 시청해주시고 물질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격려와 감사를 전합니다.

브라질 소식

라파엘은 브라질에서 태어났고 최근 아내 리엘과 함께 그곳에 사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빈민 지역을 섬기는 데에 초점을 뒀다는 점에서 달랐습니다. “리우에서 저희는 다섯 개 지역을 방문했는데,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각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적으로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저희는 놀라운 사람들과 놀랍게 연결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 할 것 없이 예슈아를 영접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라파엘은 자신이 자란 공동체에서 연합과 한 새 사람 (엡 2:15)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이스라엘과 브라질 간의 언약을 맺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새로 믿음을 갖게 되어, 말 그대로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리바이브이스라엘의 신실하고 오래된 동역자인 임팩투 단체의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 티쿤의 에이탄 쉬쉬코프도 함께했습니다.

예슈아하이 TV



“2016년부터 예슈아하이 TV의 연간 사용자는 매년 2~3배가 늘었습니다.” 아비람 엘다르 대표의 말입니다. 이 사이트는

인터넷 상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히브리어로 양질의 복음 콘텐츠를 제공하며,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예슈아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올해 저희는 제2차 대규모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고 시청자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또한 2개의 새로운 제작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또 다른 프로젝트는 제작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른 사역체들과의 동역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연합을 통한 큰 돌파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히브리어로 전문적인 복음 영상을 만드는 이스라엘의 모든 단체들과 연결하고 있으며, 그들의 콘텐츠를 방송함으로써 그들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비람은 향후를 위한 큰 계획을 갖고 있으며, 2020년 말까지 5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완수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슈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웃리치: 누가 계획하는가?

코디 아처는 여러분의 나라에 방문할 때 여러분이 자신의 팀의 계획대로 움직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접근법일까요? [여기](#)를 클릭하세요.